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재림을 위한 준비**

[살전 3:1-4]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전통사본)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너희를]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음이]니라.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게 하였다. 그는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의 동역자’라고 표현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다. 그는 그를 통해 그들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다. 목사의 일차적 사명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5-7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원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어 교회를 세우기만 하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보존을 위하여 힘썼다. 사탄이 그들을 시험해 믿음을 잃게 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전도 사역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사의 임무이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염려는 염려에 불과했다. 데살로니가 교

인들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항상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 간절히 보고자 했다. 그것은 바울 일행에게 위로가 되었다.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보다 목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8-10절] 그러므로 이는(원문, 영어성경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랴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사도 바울 일행은 살 것 같았다. 약해졌던 그의 심정은 새 힘을 얻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음을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며(히 12:2)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지키신다(시 91편). 그러므로 성도 개인이나 성도들을 위해 세움 받은 목사들은, 물론 자신과 교회의 믿음의 보존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하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목사의 사명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 목사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다. 목사들은 이 사명을 위해 먼저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해야 하며, 또 성경말씀의 충만함을 얻어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충성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11-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잠 16:1, 9).

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했다. 우리의 성화는 주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5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성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말했다(8:13-14).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다(요 13:34). 또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미쳐야 한다(마 5:44).

사도 바울은 또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원하였다.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9-10, “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며 온전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과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본문에는 ‘너희 믿음’이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온다(2, 5, 6, 7, 10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목사들을 주시고(2, 10절) 또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목사들의 성경적 설교들에 힘입어 믿음에 굳게 서고 온전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또 우리는 주의 교훈대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요 13:34; 마 5:44). 불법이 성행하므로 사랑이 식어지기 쉬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죄는 온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유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는 우리의 죄짓음과 거룩함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한미디로 거룩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삶, 곧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바벨론 멸망의 모습

[계 18:9-10]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배교한 교회라고 보이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음행을 하고 그로 인해 부요와 사치를 누린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 성이 불타며 망하는 광경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기를, 크고 견고한 그 성에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고 그 성이 재앙과 화를 당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그 성의 멸망은 일시간에, 돌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10, 17, 19절).

[11-14절] 땅의 상고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그릇들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뿔쇠, 청동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그릇들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러한 묘사들은 큰 음녀 곧 바벨론이 부유한 세상 나라들과 연합되어 있음을 보인다. 온 세계 상인들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들이 없을 것이므로 그 성의 멸망을 애통할 것이다. 그들이 취급했던 물품들은, 첫째로 금, 은, 보석, 진주 등의 귀금속들이요, 둘째로 세마

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의 옷감들이요, 셋째로 각종 향목, 상아, 값진 나무, 놋쇠, 철, 옥석 등으로 만든 고급 그릇들이요, 넷째로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등 향품들이요, 다섯째로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등의 식품들이요, 여섯째로 소, 양, 말 등의 가축들과 수레들이요, 일곱째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었다. 사람들이 한때 즐겼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 없어질 것이다.

[15-19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致富)한 부자가 되었던 이 상품의 상고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船人)[뱃사람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부자가 되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큰 음녀로 인해 부자가 되었던 상인들과 선장들과 뱃사람들은 그 성의 멸망을 인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할 것이다. 그들은 그 큰 성의 불붙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의 이전의 부귀와 영광이 이처럼 일시간에 망하는 것을 인해 무서워하며 울며 애통할 것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伸冤)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큰 음녀의 멸망을 인해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 큰 음녀, 곧 배교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을 많이 죽였으므로(17:6; 18:24)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한 피흘림을 이와 같이 갚으실 것이다.

[21-24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재장인, 기술재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

느니라 하더라.

큰 음녀, 그 배교한 교회의 멸망은 영원할 것이다. 다시는 그것이 누리던 세상적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거기서 음악소리도, 기술자도, 맷돌소리도, 등불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큰 음녀, 그 배교한 교회로 인해 만국이 미혹을 받았었고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끝날이 왔고 다시는 그 교회의 풍요롭고 영광스런 옛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간에 끝날 것이다. 바벨론 곧 배교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이 성의 심판과 멸망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일시간에’ 올 것이다. 10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라.” 17절, “그러한 부(富)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은 헛되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헛되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실 것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 원수를 갚아주시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15-16,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적, 육적 음행을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수요일 설교

헛된 종교의식

[사 1:10]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라, 여호와와 말씀들을 올리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옛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성들이었지만, 심히 죄악되었고 불경건하고 음란했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었다(창 13:13; 18:20; 19:1-13; 겔 16:49-50).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회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했고 헤이하고 안이했고 부도덕했던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예배들과 그런 헌금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밟는다’는 원어는 ‘짓밟는다’는 뜻이다(BDB, NASB).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멸시한다는 뜻이다.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기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월삭들]과 안식일[안식일들]과 대회[대회들]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많은 제물들을 ‘헛된 제물’이라고 표현하셨다. 또 그는 그들의 분향과 월삭들과 안식일들과 정한 절기들의 모임들을 기증한 것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는 그것들을 미워하셨다. 왜 그러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의 정기 집회들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었으며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일이었고 그가 지시기에 곤비한 일이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

[16-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다. 모든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실천하라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18-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많은 죄를 씻는 길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형식적 교회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형식적인 교회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있고 악을 버리지 않고 선을 행치 않는 교회생활이다. 그것은 실상 교회를 짓밟는 일이다. 이사야 1:12-14,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기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형식적인 교인에게는 진실하고 진지한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집회들을 헛되고 기증하며 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진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지적하신 비들을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바른 교회생활은 악을 버리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사야 1:15-17,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계명에 어긋나는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을 버려야 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음란을 버려야 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탐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계명의 내용은 의와 선이며 사랑이다. 우리는 범사에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힘있는 대로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